

4. 런던 ASEM 회의의 결산

- (결과)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유럽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의지를 명시한 특별 성명서를 채택
- (성과)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하여 對韓 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였으며, 새정부의 개혁 의지 천명으로 국가신인도를 크게 높였음
- (과제)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 강화와 함께, EU와의 통상 마찰 해소에 노력해야 함

○ 98년 제2차 ASEM 정상회의는 아시아 금융 위기와 관련한 양측의 입장 표명이 주요 의제가 되었음

- 한국, 태국, 인도네시아 등 외환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회원국들은 동아시아를 위한 특별 기금 조성, 유럽의 구조 조정 경험과 노하우 전수 등 ASEM 차원의 대책을 기대하고 있음
- 유럽의 입장에서도 아시아 경제 위기를 방치할 수 없는 입장임
 - 유럽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막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외채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음

○ 런던 ASEM은 의장 성명서와 함께 아시아 경제 상황에 대한 별도 성명서를 채택하였음

- 의장 성명서는 이틀간의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임
 - 한반도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아시아-유럽간 협력을 통하여 평화, 안정 및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천명
 - 화학무기협정, 포괄적 핵실험금지협정, 대량살상무기 비확산, 생화학무기협정, 핵물질 생산 금지 등 군비축소 및 통제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다짐
- 아시아 경제 상황에 대한 별도 성명서는 아시아 경제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, 단호한 대응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아시아 경제위기를 해결하는데 있어 유럽의 깊은 관심과 다자 및 양자 노력에 적극 참여한다는 점을 명시
 - 별도 성명은 또한 IMF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고 IMF 개혁프로그램의 충실한 이행을 지지하며, 아시아 국가들의 구조조정 노력을 격려하는 한편 IMF 및 여타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위기 대처 기능 강화를 지지하였음
 - 세계은행내에 개혁프로그램 이행의 기술적 지원을 위한 ASEM 신탁기금(TRUST FUND) 설립을 환영하고, 아시아의 현 상태가 무역 및 투자의 이동 변화 또는 구조조정 필요성의 결과로 보호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인식하며, 보호주의 압력을 배격하는 동시에 자유무역정진에 반하는 조치를 행하지 말 것을 강조

○ 외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투자 유치에 중요한 사안이었으며 이번 ASEM 회의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

- 각국의 對韓 투자를 유치할 가능성을 높인 것은 실질적인 성과로 볼 수 있음
- 의례적인 방문외교에 그치지 않고 세일즈 외교에 직접 나서서 실리외교를 추구한 것은 이번 ASEM의 큰 성과로 볼 수 있음
- 특히, 새정부의 개혁 의지 천명은 국가신인도를 크게 높이는데 도움을 주었음
- 아시아·유럽국가의 공동번영을 위한 “경쟁과 협력”의 정신을 강조하여 영국 경제계와 아시아·유럽국가의 협력을 이끌어냈음

○ 외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ASEM 정상회의를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 이를 위한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임

- 적극적인 대한 투자를 요청한 만큼 투자 유치를 위한 국내적인 노력이 필요함
- 현재 외국인투자 관련 분야의 규제 완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, 투자 유치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기대됨
- 법령상의 규제 완화와 함께, one-stop 서비스 체제의 구축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 개선 등이 필요할 것임

○ 유럽과의 통상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나가야 할 것임

- 외환 위기 이후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, 우리나라의 對EU 수출이 급증하고 있음
- 97년중 대EU 수출은 10.0% 증가하였으며, 이러한 추세는 98년들어 더욱 심화되어 98년 2월까지 30.0%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
- 반면 EU로부터의 수입은 98년에 2월까지 -35.9%의 급감세를 보이고 있음
- 따라서 향후 통상 마찰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음
- EU는 한국의 자동차 시장, 酒稅 체계, 조선 설비 확장 등의 문제를 제기하여 왔으며,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등으로 통상 마찰을 빚어왔음
- 외환 위기 이후의 대EU 수출 급증으로 보호무역주의의 부활이 우려됨
- 반면, 우리의 입장에서는 경상수지 흑자 확대가 외환 위기를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유럽측에 인식시키고 최소한 외환 위기 기간중의 통상 문제 제기를 자제하도록 하는 외교력을 발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

(전 민 규 mkjun@hri.co.kr 724-4015)